

# 베스트셀러의 후광 효과 노리는 패러디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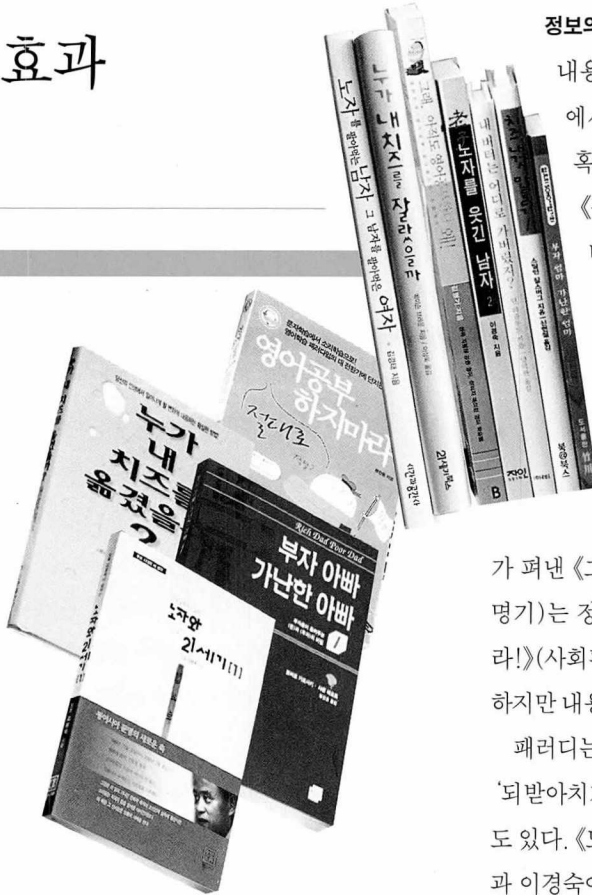
패러디 책의 상흔과 운명

요즘 문화계의 화두는 단연 패러디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영화나 코미디, CF로 친숙하다. 지금 음악계에선 서태지와 이재수의 패러디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보수적'인 출판계에서도 패러디물이 줄을 잇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패러디의 대상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기존의 유명작품이라는 점이다. 여기엔 베스트셀러의 '후광'을 엮고 '한몫' 잡아보자는 식의 상업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그래서 패러디작들이 내세우는 전략은 원작과의 '차별화' 전략일 수밖에 없다. 기왕에 권위주의화된 문화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원작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했다는 '오해'를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출간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베스트셀러 종합순위에서 줄곧 상위를 차지해온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스펜서 존슨, 이영진, 진명출판사)는 가장 많은 패러디작을 낳았다. 메이슨 브라운의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이상욱, 21세기북스)는 《...옮겼을까?》의 첫번째 패러디작이다. 21세기북스 김기옥 정보개발팀장은 “《...옮겼을까?》가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한 반면, 《...잘랐을까?》는 관계 중심적”이라며, “인간의 내면과 사람들의 관계구도에 주목한 좀더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현재까지 5만부 정도 팔렸다. 물론 원작에 비할 순 없지만, 만만찮은 기록이다. 21세기북스의 차별화 전략은 광고컨셉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팀장은 “원전과의 차별성을 강조해 독자가 두 책을 비교할 수 있



게 했다. 균형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원전을 읽은 독자가 읽어야 할 책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고 말한다.

북@북스에서 펴낸 스틸턴 잘스버그의 《치즈 내것 만들기!》(신현철)은 원전에 대한 '확실한' 패러디다. 등장인물과 상황설정도 같다. 저자라고 내세운 '스틸턴 잘스버그'는 유명한 치즈 상표고, 추천자 '블루치즈' 박사는 《...옮겼을까?》의 추천자 케네스 블랜차드의 패러디다. 박희희 차장은 “관권만 빼고 이 책 자체가 모두 패러디지만 《...옮겼을까?》가 변화의 낙관론을 심어준 반면, 《치즈 내것 만들기!》는 행복을 내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치즈열풍'이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8월에는 이레가 《내 버터는 어디로 버렸지?》(딘 리플우드, 양역관)를 펴냈다. 이번엔 '치즈' 대신 '버터'인 셈이다. 홍보팀 이은진씨는 “현재로선 '버터'가 '치즈'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이끌어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 정보의 질과 차별화로 승부해야

내용을 패러디한 것은 아니지만, 제목에서 베스트셀러를 의식한 듯한 '의혹'을 남기는 책들도 있다. 황학삼의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죽천)는 로버트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형선호, 황금가지)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다. 《부자 엄마...》를 쓴 황학삼씨는 “마케팅은 생각도 못했지만, 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간다”며 제목 '덕'을 봤다고 밝힌다. 그린비가 펴낸 《그래 아직도 영어공부한다 왜!》(김명기)는 정찬용의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사회평론)를 의식한 듯한 의혹이 짙다. 하지만 내용은 원전과 무관하다.

패러디는 아니지만 먼저 출간된 책에 대한 '되받아치기' 내지는 '반박'적 성향을 띤 책도 있다. 《도덕경》의 해석을 두고 도올 김용옥과 이경숙이 벌인 '노자공방'이 그것이다.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전3권)》(통나무)를 '아줌마 검객' 이경숙이 《노자를 웃긴 남자(전2권)》(자인)로 도올의 해석에 '탄죽'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공방은 지난 6월 출간된 《노자를 팔아먹는 남자 그 남자를 팔아먹은 여자》(김경태, 시간과공간사)라는 제3의 '검객'이 등장해 끝을 맺을 듯하다.

'노자공방' 이전에는 '공자공방'도 있었다. 공자의 도덕을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라 비판한 갑골학 박사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가 나오자, 한문학자 최병철 교수가 '발끈'하고 나선 것. 최병철의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시아출판)는 지은이도 밝혔듯 《공자가 죽어야...》를 반박하기 위해 씌어진 책이다.

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패러디가 상업성을 전제한 만큼 도덕성 논란이 있지만, 출판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부정할 수 없다”며, “절대적인 선만 중시할 게 아니라, 정보의 차별화, 다양성의 측면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옥순 기자